

2020년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제4강 -동두천, 난민 그리고 활동가

강연: 강슬기(의정부엑소더스)
녹취정리: 고일해

[동두천, 난민 그리고 활동가 (00:01~00:36)]

동두천 난민 그리고 활동가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왔는데요. 난센포럼에는 난민공동체와 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어요.]

[목차 (00:36~01:08)]

일단 동두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동두천의 지역 현황이랑 동두천에 있는 난민공동체 속에 동두천가톨릭센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가톨릭센터를 겪으면서 만나게 되는 저의 고민과 과제들을 마지막에 같이 나눌 건데요.]

[동두천-지역현황 (01:08~01:56)]

앞으로 나올 지역에 대한 내용이 밑에 쓰여 있는데 이 동두천 턱거리 마을과 공동체 아카이브라는 자료집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동두천은 8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제가 만나는 난민분들이 다 퍼져 계시는데 저희 센터가 설립된 곳은 보산동에 있고 통계에도 보이겠지만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보산동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계십니다.]

[동두천 (01:56~03:27)]

동두천은 사방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략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라고 해요. 지금도 산악 관련 관광지들이 많고 한국전쟁 이후에 수도방어 전진기지로 많은 군사시설이 들어섰고 특히 휴전 이후 주한 미군이 주둔하면서 많은 인구가 동두천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전부터 이주의 역사는 많지만, 이때부터 이미 동두천은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951년 7월부터 동두천에 주한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고요. 한국전쟁 기간에만 동두천에 5개의 미군기지와 1개의 훈련장이 들어서게 되고 12,255평에 달하는 미군공여지를 한국 측에서 제공하고 동두천시 전체면적에 42%가 미군공여지입니다. 주한 미군이 주둔하면서 동두천 시가지가 새롭게 개편되고 50~70년대까지 미국 관련 산업의 활기로 동두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 호황기를 이루었는데요. 당시 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외화만 한국 총수출액의 1%를 상회하는 정도]

[동두천2 (03:27~04:56)]

미군클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인구가 급증하고 그런데 70년대 주한 미군에서 지급되는 달러의 한국 내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단행하는데 예를 들면 위의 시설들을 기지 안에 설치해서 미군들의 외박이나 그런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동두천 보산동 지역이 쇠락하기 시작했고 2000년 11월에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서 미군의 축소와 병력 재배치를 추진하게 되고 2004년 7월에 제10차 미러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최종협약안에 따라서 동두천의 경우에는 캠프 모빌, 캠프 님블, 짐볼스 훈련장, 캠프 캐슬을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약 1만 명 이상의 미군이 동두천시에만 주둔하고 13년 기준으로는 동두천시 전체 인구의 약 17%가 미군 관련 종사자이고 동두천시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약 30%의 인력이 주한 미군과 연관된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 경제에 주한 미군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의 지역]

[동두천3 (04:56~05:51)]

동두천시에서는 지금 반환될 미군공여지의 공간 활용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과 주한 미군의 감소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입게 될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2006년 3월에 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고 하는데 시행령이 부실하고 주한 미군의 철수가 연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시의 지역 발전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공여지 면적이 이 정도인데 현재까지 반환된 면적이 이 정도고 여전히 절반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

[동두천사진 (05:51~06:22)]

보산역이거든요. 지하철 1호선 보산역이고 1번 2번은 출구 번호예요. 1번 출구 2번 출구 여기가 보산동이고 바로 옆에 있는 캠프 케이시 미군기지가 여기 크게 하나 있고 동그라미 전체가 다 미군기지에요.]

[동두천 사진1,2 (06:22~08:01)]

이런 그래피티가 지역을 다 꾸미고 여전히 동두천 예전에 테일러샵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으면서 이 안에 청년 공방들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산동뿐만 아니라 이태원도 그렇고 좀 아쉬운 점은 이곳에 여성들의 흔적이 그냥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 지역만이 아니라 그런 역사들은 다 사라지고 청년 공방들과 이런 것들로만 보산동에서 기지촌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낙인이 되게 무서운 게 70년대 분들이 고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 그랬데요. “너희들 서울로 나가게 되면 동두천 출신이라고 하지 말고 천두동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라” 서울의 어느 지역인 것처럼 그래서 경기문화

재단에서 천두동 이라는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이런 동두천의 역사와 거기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얘기들이고 그 정도로 기지촌이라는 낙인이 동두천시에서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두천 사진3 (08:01~08:23)

보산역 보시면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 사건 아시죠? 주한 미군 윤금이 살해사건 그게 여기에요. 윤금이 터가 여기서 도보로 금방이에요. 2~3분 거리에 있어요.]

[동두천 사진4 (08:23~08:55)

동두천에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회 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그 곳에서 추모 시간을 가져요. 올해도 했었고 올해가 29주기였어요. 여전히 안쪽의 골목들에는 계속 운영되는 클럽들도 있어요.]

[동두천 사진5 (08:55~09:11)

여기가 캠프 케이시 정문이고 2번 출구로 나갔을 때 거기는 주거 공간들이거든요. 2번 출구로 나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동두천 사진6 (09:11~09:23)

이곳에 이주민 난민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많이 걸어 다니는 거리입니다.]

[동두천-난민현황 (09:23~10:07)]

동두천의 등록 외국인만 보면 동두천시의 3월 31일 기준으로 3,639명 정도가 있고 가장 많은 것은 E-6 385명, E-9 581명, 결혼이민 399명 있고 난민 관련 비자 체류자격만 봤을 때는 난민인정자가 7명, 난민신청자가 686명, 난민체류자가 41명]

[동두천-보산동 (10:07~11:16)]

보산동만 따로 봤는데 보산동에만 등록 외국인이 893명이 있고요. 주민등록인구는 3,000명 정도가 있는데 보산동의 한 동에 지역주민이 동두천시 전체의 외국인 주민 수와 거의 비슷한 3,000명이고 주민등록하고 비교하느라고 같은 거로 19년도 기준이고요. 아래는 보산동 안에만 난민체류자격 분들이 386명 정도가 있고 난민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고 싶어서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정보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확실히 12년 13년 이후로부터 꺾꺾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찾고 있는데 그 이유를 난민법 개정이 확실히 영향을 미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동두천 (11:16~12:16)]

연령별로 확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20대부터 40대까지가 특히 30 후반 77명 가장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작년 4월까지 난민아동지원사업을 담당했었는데 절대 이 수가 이렇게 적지가 않거든요. 무국적자랑 미등록을 포함하면 이 통계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적별 현황도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만나본 난민신청자들은 아프리카 출신인데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가 제일 많아요.]

[동두천-공동체현황 (12:16~13:42)]

공동체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모르는 공동체도 더 있을 수도 있고 3개의 공동체를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는 비아프라공동체로 비아프라공동체 많이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델이고 99년도에 단체가 설립돼서 비아프라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한국에는 14년도에 한국지부가 생기고 본부가 동두천에 있습니다. 전에는 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옮겨졌어요. 동두천하고 안산 외에도 광주, 파주, 송탄 이렇게 5개 지역에 비아프라공동체들이 있고요. 전국에 있지만, 집, 사무소 이렇게 다섯 군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국내에는 비아프라 등록 인원이 100명 정도 있고 그중에 50명 정도가 동두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여기가 동두천 성당이거든요. 성당 앞에서 비아프라 분들의 모습이에요.]

[동두천-공동체현황2 (13:44~15:50)]

동두천난민공동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 동두천 내 난민 가정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우리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요구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서로가 돕기도 하고 집회 때도 몇 차례 오셔서 발언도 하시고 그랬었고요. 동두천난민공동체 안에서 최근에는 비아프라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모임을 갖는게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회비도 모아서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분유를 서로 지원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엑소더스를 연계를 한다거나 하고, 동두천난민공동체는 국가가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가나, 토고 다양하게 관련돼있고 동두천난민공동체도 80명 정도 있고 이것은 회의하는 모습이에요.]

[동두천-공동체현황3 (15:50~16:56)]

여기는 가장 최근에 생긴 공동체인데 이타다 라고 작년 말에 생겼어요. 처음에는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도 서부, 동부, 남부 다 문화와 이런 것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동부 분들 중심으로 아프리카 동부공동체를 처음에는 조직하려고 했었는데 과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아프리카의 그런 문화를 알리는 춤, 노래, 악기 이런 걸 알리는 공동체로 이타다 라고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공연도 하고 그런 문화 워크숍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래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으면 연결을 해달라고하셨는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아무 데도 연결을 못 해드렸어요.]

[동두천-공동체 위기 (16:56~18:41)]

2018년도 벌써 1년 전인데 다른 공동체의 이야기는 아니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동두천난민공동체가 겪었던 일인데 공동체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개인 활동가가 있었어요. 활동가와 공동체가 몇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공동체 설립자가 누구이냐, 활동가 구성원을 향한 태도,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에 갈등이 생겼었고 이 갈등이 2018년도 4월~5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8년도 초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불만이 계속 나오는 것은 5월부터 시작이 되다가 중간에 과정이 있었고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공동체 분들이 많이 서로 상처를 받았고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도 겪고 그런데 공동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동두천가톨릭센터 (18:41~19:47)]

그 일을 통해서 이주민 분들과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것은 동두천가톨릭센터이고요. 천주교 의정부 교구에 사회사목국 안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아동사목위원회 하고 이주사목위원회가 같이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 1층은 지역아동사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초, 중, 고생을 위한 아동 공부방이고 2층이 의정부 EXODUS 보산사무실 저희는 평화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19년 8월 29일에 축복식을 하고 9월에 개소 예정이었는데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서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동두천가톨릭센터2 (19:47~20:24)]

그때 당시의 앞집과 옆집에 걸려있었던 현수막인데요. 그때는 가톨릭난민센터였고 가톨릭난민센터 즉각 중단하라 주민 동의 없는 난민센터 설치 결사반대 국제 난민 살리려다 보산동 주민 다 죽이나 그러면서 난민센터 설치반대 보산동주민 위원회가 꾸려져요 여기에]

[동두천가톨릭센터3 (20:24~21:22)]

4월20일에는 설치 반대하는 보산동주민위원회 집회도 열리게 되고 그때 분들이 메시지와 한 이야기가 있는데 팩트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실 거고 여기에서 한가지 너무 화가 났던 것은 다 화가 나는 부분들이긴 해요. 다 화가 나지만 13번이 “어떤 범죄자인지도 모르는 난민이 맘껏 활보하고 선량한 주민은 불안에 숨어 지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말 너무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했었어요.]

[팩트체크 (21:22~22:01)]

2019년 동두천시 전체 범죄 발생 현황이 3,181건이 있었고 19년도 외국인 범죄 현황 거기서 불법체류자라고 하고 불법체류자가 특별법 위반이 두 명이고 국적은 나이지리아 필리핀 범죄유형은 출입국관리법, 교통사범이 있고 형법 위반은 7명이 있었고 국가는 이러합니다. 범죄유형도 이러하고 이게 불법체류자의 현황이고]

[팩트체크2 (22:01~23:17)]

체류 외국인을 보면 특별법 위반이 40명이고 그중에 미국이 11명 그 뒤에 범죄유형이 나오고요. 형법 위반이 63명, 이것도 미국이 22명, 중국에서 15명, 나이지리아 4명, 라이베리아&시리아 2명 나머지는 다 한 명씩 범죄유형은 또 이러합니다. 저는 교민분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너무 확인하고 싶다. 해서 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

[동두천가톨릭센터 (23:17~24:17)]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런 것이었어요. “교구에 대한 불신과 소통이 부족했다.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었느냐.” 난민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이로 인한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우려, 자신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 땅값 떨어질 거다. 지역이 슬럼화된다. 그리고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 “왜 천주교가 앞장서서 우범지대를 만드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반대 주민분들을 만나기보다 저희 찬성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교구의 입장을 대변해줄 주민대표를 뽑아서 동두천 성당 신자분이셨고 그분이 직접 반대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동두천가톨릭센터2 (24:17~26:47)]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또 답변서를 보내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요구사항을 듣고 2번 정도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인 최종 답변서를 5월 26일에 보산동주민센터에서 교구 측하고 보산동주민반대위원회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반대하던 주민분들도 “우리도 앞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7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의 답변은 앞으로 이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반대주민위원회에서도 함께 해서 운영을 같이하겠다. 센터 명칭은 동두천가톨릭센터로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이용대상은 신원이 확실한 아동, 청소년, 선주민 아동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만 운영해라” 하는 거죠, 그분들 처음에 요구상황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절대 안 된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센터를 이용하는 범위가 초가 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센터 이전을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서를 놓고 치안에 대한 불안한 상황을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주민들 불편사항을 제거하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해서 저희가 이걸 받아드리고 올해 7월에 개소하게 됩니다.]

[동두천가톨릭센터 서명서 (26:47~27:14)]

그때 주민분들도 저희의 협조를 하겠다. 라는 서명서를 작성해 주세요. 밑에는 40명 정도의 이름과 사인을 적어서 저희에게 주셨어요. 딱 한 집만 끝까지 여기에 서명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동두천가톨릭센터 사진 (27:14~27:37)]

그분 집 앞에는 이게 다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이것을 붙여 놓으셨고 지금은 떼셨어요. 집을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어서 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활동가 고민 (27:41~31:31)]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고민은 첫 번째는 동두천난민공동체가 만들었던 성명서를 저희가 지지를 하면서 문제가 퍼지기 시작했던 건데 이걸 통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만들었던 성명서를 엑소더스가 발표하고 싶다고 했고 이걸 발표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두천난민공동체가 난민네트워크회원 단체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회의 때 공유를 하겠다. 라고 하셨었고 그때 이분들은 난민네트워크에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었고 자신들이 겪었던 이것을 알리고 싶었고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그 활동가에게 다 들릴까?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엑소더스가 성명서를 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했고 거기에서 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개인 활동가의 실력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었고 근데 무엇보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공동체와 활동가의 갈등이었는데 개인 활동과 엑소더스 갈등 구조로 변질하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개인 활동가를 더 감싸는 분위기가 엑소더스도 당시 욕 엄청 먹었고 저도 욕 많이 먹었고 너무 속상했고 상처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 센터와 제가 욕먹는 것은 감당할 수 있었는데 저희 때문에 난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모든 목소리에서 심지어 더 심한 경우에는 그 난민공동체도 욕을 먹고 그중에 그들을 욕하는 사람 중에는 난민공동체를 직접 만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사람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는 거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체 우리

는 목소리를 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체 그들은 어디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주변이나, 주변인이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목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는 현실이 웃겼었고 저도 되게 많이 얻은 것이 있었어요. 같이 상처 엄청 받았는데 난민공동체와 함께 두터운 신뢰를 서로가 갖게 되었고 그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이 소식을 난민분들도 들으시고 그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너의 증인이 되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하면서 죄송했어요.]

[활동가 고민2 (31:31~36:11)]

동두천가톨릭센터 설립 과정에서 고민도 제가 두 가지 착각을 했었는데 동두천 이주역사가 매우 길고 저도 6년 채웠거든요. 활동하면서 5년을 의정부에서 동두천을 왔다 갔다 하고 동두천 가정방문 활동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동두천이라는 지역이 이주민에 대한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큰 착각이자 실수였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은 기지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유로 왔던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이주민이 선주민이 되어 가는데 미군들이 빠지면서 또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민 난민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미군들에게 내줬던 예를 들면 방, 월세들 받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이주민 난민이라도 받아서 자신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착각은 팩트나 숫자를 보여주면 설득이 될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그런 것을 보여줘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두 번째 했던 고민은 센터를 설립한 시작부터 이주민, 선주민 다 같이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행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 세울 수는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처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세운 공간은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그러한 과정에서 가짜 뉴스 아까 말씀드렸죠? 예멘 난민들이 이곳에 몰

려울 것이다. 그런 가짜뉴스가 동두천시 보산동 주민들 안에 많이 퍼졌었거든요. “여기는 난민 700명 정도가 들어올 수용시설이고 숙박도 가능하고 식사도 제공한다” 하더라 난민들에게 “전국의 난민이 모일 것이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만약에 함께했더라면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없을 수 있었던 설명이 되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은 막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세 번째는 저희가 교구를 대표로 주민대표를 내세웠지만 이것이 사실은 온전하게 이주민의 인권 난민을 위해서 하셨다기보다 종교적인 이유가 더 컸어요. 종교적인 이유가 더 컸고 그래서 반대 주민들하고의 설득 과정에서 저희 언어로 설득된 건 아니에요. 설득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언어와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진행되었고 그래서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랬으면 개소를 못 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런 것을 하려면 주류의 언어를 택해야 하는가? 그 언어로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언어가 들리는 게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센터 설립 과정에서 대체 난민은 어디에 있었는가? 너무 천주교회와 보산동 선주민만 있었던 그 모든 협의 과정 자체도 이 센터가 개소 되는 것에 난민분들이 많이 기대하셨었거든요. 사랑방 공간도 공동체 모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같이 얘를 했었는데 위원회도 난민분들은 없어요. 물론 제안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활동가 과제 (36:11~37:28)]

제가 가진 과제는 동두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안에서 분명히 저는 보긴 보았거든요. 이주민, 난민, 선주민 입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고 난민분이 어떤 할머니께 쌀이랑 치킨을 챙겨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달라고 하면 나눠 주기도 하고 가정방문 하면서 집에 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오셔서 음식을 주고 가신다거나 그런 모습들도 저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동두천이 되게 오랜 시

간 동안 서로가 어떻게 부대껴 왔을까 이게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하고 한국 전체가 동두천인 지금 동두천에서 이주인권운동의 대안이나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공부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활동가 과제2 (37:29~41:12)]

이것도 저의 과제인데 차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오늘 발표를 하면서 계속 마음에 두고 발표를 한 것은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들은 멋진 사람들이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어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일상에서 힘이 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확실히 평화공간이 주저 공간 안에 있으니까 딱 상담만 하러 오기보다 어제 힘들었던 이야기도 풀 곳이 없으니까 오셔서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일상에서 힘이 있어야 내 일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민인정을 받는 이런 큰 힘이 아니라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힘이 되는 그런 거랑 성명서 때부터 계속해왔던 고민이지만 그전에도 활동가로 있으면서 난민과 활동가의 권력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요즘 제가 많이 유혹이 있는 게 5년 6년 활동을 하고 공동체 분들도 한 16년도 15년도 오래 알게 된 분들은 14년도부터 알았고 많이 알게 되니까 이게 유혹이 많아요. 관계로 이용을 하려는, 거리 두기가 안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속해있는 단체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엑소더스에서 벗어난 강슬기와 난민 이분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제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런 것도 계속 내려놓으려고 하고 안되면은 그만둬야지요. 이게 저의 과제입니다.]